

자연보전, 이용과 성경적 관점

Preservation and Use of Nature and Biblical Perspective

김종달(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자연질서의 회복이 인간 구원의 이슈가 되는가?

III. 자연 파괴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은?

IV. 생태계는 어떤 순서에 따라 파괴되는가?

V. 자연은 유기적인가 기계적인가?

VI. 정의로운 자연 사용이 무엇인가?

VII.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VIII. 자연 회복은 누가 하는가?

Preservation and Use of Nature and Biblical Perspective

By Jong-Dal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conomics & Trade)

With the beginning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increasing use of fossil fuels and natural resources are perpetuating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its environmental pressure has reached to the limit of its natural capacity. Changes in global atmosphere chemical mixture and global climate change are representative signs of God-created nature being destroyed. Recently,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central to current concerns about natural preservation and economic and energy development.

In this vein, the paper examines key environment-related socio-political and economic approaches comparing with the Biblical perspective. Major inquiry are as follows: how our Christians should understand theses problems? What can our Christians do in coping with these issues? How much significantly important of these efforts in terms of the Bible? What can we learn from the Bible in finding the causes and solutions of problems? Are there many differences of socio-economic and scientific approaches from those of the Biblical perspective, how different?

Key words: 공동운명체, 자연 자원 고갈, 총체적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유기적 자연, 환경 정의, 에너지 체제, 제도 변화, 자연의 공유, 하나님 중심의 자연관

I. 들어가는 말¹⁾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과 함께 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 또한 자연 재해와 한계의 극복을 통해 주어지게 될 수 있음이 창세기, 출애굽기 등과 같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연 한 가운데 두셨을 만큼 자연을 인간과 공동운명체로 창조하였다. 그러나 현대 세대는 산업혁명 이후, 특히 20세기 이후 엄청난 양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상황으로까지 몰아왔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으신 경계를 뛰어넘음으로써 타락하여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현대 인간은 자연질서의 경계를 넘는 파괴로 생존 위기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날 자연이 감내하고 있는 환경부하의 속도와 범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광범위하다. 물, 공기, 땅의 오염은 물론, 삼림의 황폐화와 자연 자원의 고갈 속도는 전지구적인 규모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양의 오염 또한 그 규모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종 다양성 손실, 사막화 등 여러 지구 환경 문제들은 규모, 범위 또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산업혁명은 기술과 인간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념을 가르쳐 주어 노력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들었다. 즉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미래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

1)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과 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술의 한계와 정도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으며 환경파괴 속도는 빨라지고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결국 현대사회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파괴와 발맞추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는 기독교인의 노력은 어느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으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다양한 과학적 접근 방법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방향이 같은가 다른가? 이것에 대한 답을 구해 보려는 노력이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II. 자연질서의 회복이 인간 구원의 이슈가 되는가?

자연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인간과 우주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으니, 아름다운 피조물임에 틀림없다. 이런 자연은 인간과 동식물을 포함하는 자연 생태계(ecosystem)를 의미하는데, 인간이라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도 자연이 인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존재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창 2:7, 19, 9:9-10). 인간의 육체적 기원은 땅에 있고, 지구와 생태계는 인간 삶의 터전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계는 이 지상적 삶에 있어서 동반자요 공동운명체인 것이 분명하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을 보면 먼저 동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축복하고(창 1:22), 그 바탕 위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주어졌다(창 1:28).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있어서 안식일의 범위 안에 있다(출 20:10).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언약을 맺으실 때 들짐승과 새와 곤충 등 피조 세계와도 관계

를 맺고 있다(호 2:18).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생태계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총체적 생태계(total ecosystem)' 개념으로 이해하는 신학이 있다(정중호, 1997). 뢰테르(R. Ruether)는 “인간과 자연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의 계약 피조물이다”, “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메시아적인 거룩한 비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정중호, 1997 재인용).

아무튼 성경은 인간을 비롯한 지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실체이며,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고귀함을 매우 잘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피조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또 그것을 착취하고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들도 통제받아야 하며, 동시에 그것의 창조 때의 모습을 잘 보존, 유지해야 한다.

사실 출애굽기는 환경 재앙과 자원 부족에서의 해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적인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하고, 비옥한 땅을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추상적 개념이기보다는 구체적인 형태로 그들에게 다가서 있다(노영상, 출애굽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이 주는 고통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환경 오염을 넘어서 지구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굶주리며, 쓴 물로 목말라 죽게 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며, 비옥한 자연을 더욱 갈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의 인도를 소원했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은 비옥한 가나안 땅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았던 출애굽 때의 노력과 비견할 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다. 즉 자연 회복을 위한 기독교인의 노력은 구체적인 구원을

향한 신앙 고백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III. 자연 파괴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은?

역사가 린 화이트(Lynn White, Jr.)는 환경문제의 원인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창 1:28), 이러한 가르침이 서구문화를 통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조화롭던 관계를 왜곡시켰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점과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생물에 대한 지배권이 주어졌다는 두 가지 측면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그들의 목적에 따라 자연을 개발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다(White, 1967). 따라서 화이트는 인간의 우월성이 거부되고 자연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채택하는 기독교 이외의 대안적인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임을 주장했다.

자연은 피조물이며 인간은 그 자연을 관리하는 존재임을 부각시킬 창세기 1:28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인상을 주었으며,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보다 상하 관계로 인식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자연을 잘 가꾸라는 보존자 내지 청지기적 담당자임을 가르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발생한 것이지만, 현대 환경 오염이 서양 문명의 소산이고 서양 문명이란 것이 곧 기독교 문명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책임을 기독교에 지우는 것이다.

신앙을 찾아 신대륙을 찾은 미국의 청교도들도 자연을 인간의 적으로 보고 자연과 싸워 이기는 정신을 미덕으로 기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라는 책(최준석 역, 2002)은 신대륙 발견 이후 백인들이 들소 사냥을 주식으로 하고 옥수수 등의 약간의 농사를 지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동화되어 살던 인디언들과

그들의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금을 찾아 침입해 들어오는 백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사냥하며 돌아다니는 인디언과 들판을 뒤덮던 들소는 미국 땅에서 사라졌다. 산은 금광을 찾는다고 파헤쳐지고 땅은 척박해져서 콜럼부스가 처음 발견 당시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숲의 모습을 더 이상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연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했던 인디언에게 미국인들이 들소 가죽만을 위해 들소를 몰살시키는 행위는 분노를 사게 했고, 백인들의 인간과 동물, 즉 생명에 대한 무도한 약탈과 파괴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은 백인 입장에서는 모험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는 진취적인 이념이었지만, 당하는 인디언의 입장에서는 땅과 목숨을 빼앗아 가는 파괴적이고 탐욕적인 정신이었다.

현대 우리 기독교의 삶과 경제는 비기독교인들과 별 차이 없이 과거 잘못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어서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질책을 듣고서도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연이란 것은 정복해야 할 대상인 것으로만 알 뿐,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는 인식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강이 필요한 곳에 강을, 바다가 필요한 곳에 바다를, 땅이 필요한 곳에 땅을, 산림이 필요한 곳에 산림을, 풀밭이 필요한 곳에 풀밭을 이미 다 주셨고 모든 것이 다 뚜렷한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억지로 뒤바꾸고 흐트러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복돋우어 주는 청지기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창세기 1:28절이 환경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니지만, 화이트가 지적한 것이 마치 사실처럼 오해에서 비롯된 인식이 계속된다면 기독교인들은 크게 반성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적극적인 치유에 나서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태계 위기의 발생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

닌 인간, 즉 우리의 잘못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지구적 규모로 된 현대 환경문제가 인간의 우월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곡된 가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 가치를 실행으로 옮기는 불완전한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s)에 있다고 보는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인간의 잘못은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파괴, 즉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파괴에서 비롯되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 자연은 상처를 입게 된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다(창 3:17). 즉 사단의 유혹에 의한 창조주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는 불순종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 옥토가 거친 황야로 변하고, 홍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라는 자연재해를 통해 인류가 멸망 직전의 상황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환경을 파괴시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도 역시 인간이다. 생태계 위기의 문제 해결 방안도 인간, 즉 사회의 변화에서부터 나와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IV. 생태계는 어떤 순서에 따라 파괴되는가?

성경에서의 자연은 매우 질서 있게 창조되었고 파괴도 순서에 따라 심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창세기는 지구가 기본적으로 생태적인 질서 형태로 창조되었음을, 출애굽기는 생태계가 질서에 따라 파괴되는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지구의 기본 생태계는 하늘, 땅, 바다/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생물종으로 충만하며, 녹색식물이 땅에서 자라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소비자는 먹이 사슬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동식물의 사체는 토양 속

에 있는 진균류, 박테리아 등과 같은 분해자에 의해 영양물질로 바뀌어 되돌아가며 순환하게 되는 정교하며 균형 있는 생태계의 순환 법칙의 질서로 창조되어 있다. 생산자인 모든 녹색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광합성 작용으로 유기물질을 생산하며, 이들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초식동물은 1차 소비자이고,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체는 2차 소비자이다. 2차 이상의 소비자들은 육식 동물과 사람이다.

생태계의 간단한 사례를 들면, 미생물인 박테리아나 곰팡이는 식물이나 동물이 없이는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할 수 없다. 식물도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식물은 동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들 생물뿐만 아니라 생물과 물, 공기, 흙 등의 환경 간에도 마찬가지로이다. 흙은 점토와 유기질이 있어 칼리, 칼슘, 나트륨, 철분, 인산염, 질산, 황산 등 생물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보관할 수 있는데, 유기질은 생물이 있어야 만들어진다. 생물이 없으면 유기질이 만들어지지 않고, 흙에 유기질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 없는 서로 엮여진 관계에 있다. 흙은 물이 없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나무 또한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생물들은 산소의 공급을 받아서 살고 식물들은 산소를 만들어 내는데 알고 보면 식물들도 산소가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리고 그 식물이 없으면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김정옥, <http://www.kacr.or.kr>). 이와 같이 자연환경은 신비 투성이며,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물, 공기, 흙, 동물, 식물 미생물들이 모두 연관되어 질서 있게 존재하게 되어 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의해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생태계 파괴 과정도 매우 체계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현대 환경 위기의 심화 정도를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첫 번째의 재앙은 물의 오염이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 이

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타 민족을 억압하는 이 집트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환경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의 환경적 재난으로 시작된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생태계 파괴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다. 갑자기 개구리와 이와 파리 떼가 이집트의 전역을 덮치게 된다. 여덟째의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이다. 생태계는 종간의 균형을 긴밀히 유지하며 지탱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이 무너져 한 종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 우리는 재앙을 만나게 된다.

다섯 번째의 재앙은 2차 소비자인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다. 가축에 광우병, 구제역 등의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가축들이 죽는 재앙이다. 일곱 번째의 재앙은 우박 재앙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재앙이다. 아홉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 어두움으로 이집트의 전역을 어둡게 한다.

마지막 열 번째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과 가축들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다. 환경적 재난은 사람들의 죽음의 행렬로 이어진다. 환경문제로 야기된 고통이 가축과 인간생명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먹이연쇄에서 먹이단계의 하급 생물들이 상급 생물들보다 환경 오염에 더 약한데 하급 생물이 피해를 입으면 상급 생물은 점차적으로, 자동적으로 에너지 피라미트의 법칙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다. 생물들은 모두가 상호의존적이므로 하찮게 보이는 한 생물의 멸종은 곧바로 다른 생물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서도 생명의 기본이 되는 물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여 하급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짐승들의 죽음, 기상 이변 그리고 결국 인간들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는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작은데서 시작하여 파괴되고 결국은 인간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는 그 경제적 규모와 에너지 기술구조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 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수렵 채취 및 삼림에 불을 질러 화전을 일구는 형태로 자연 파괴가 빈번히 행해졌다. 농경, 목축 역시 자연에 의존한 생산 형태로서 저습지와 간척지를 개간하고, 경작지의 관개를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토지 이용에 따른 자연 파괴가 행해졌다. 대표적으로 행해진 환경 파괴는 아마도 고대 문명의 발생지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이 대규모 관개 사업으로 인하여 토양의 염분이 증가하여 척박해져 사막화한 것이다. 중세에 이르면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의 다양한 양태들이 보여진다. 도시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거리가 쓰레기와 가축의 오물로 뒤덮이고, 지방은 삼림의 벌목과 광산의 남굴 등으로 자연 파괴가 행해졌다.

13세기의 영국에서도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대기오염 때문에 당시 국왕 에드워드 1세에 의해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16세기 초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던 시대로부터 절대주의를 거치면서 도시의 발달과 매뉴팩처의 발달로 이러한 연기의 피해는 더욱 확산되었다.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공업도시가 생겨나면서 매연에 의한 대기 오염은 더욱 가중되어서, 19세기 말에 이르면 '스모그(smog)'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 이처럼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연 훼손과 환경 오염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은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사회 문제로서 인식됨이 없이 일과성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공업의 발달과 근대 화학공업의 성립으로 서구 사회는 과거 사회의 환경 파괴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단절적으로 급속하게 전개되는 환경 오염에 허덕이게 된다. 현대 환경 오염은 오늘날, 물, 공기, 땅 오염에 이어서 생태계의 급격한 파괴로 연계되

고 있고, 그것도 지구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 주는 파괴 순서대로 점점 그 파괴 정도가 근원적이고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 치명적인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 해도 그 피해가 국지적이었고 금방 복구될 수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체제파괴, 많은 인간 피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던 산림의 1/3이 사라졌으며, 해마다 코스타리카 세 배 정도의 면적에 해당하는 1,400만 헥타르의 적도 지역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 20년 내지 30년 안에 지구 생물종의 1/4이 멸종될 것이라고 추산이 되고 있다. 생물의 종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지구 생태계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 이 생물의 급속한 멸종은 삼림, 습지, 산호초와 같은 생물들의 좋은 서식처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소비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고정시키더라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은 50년, 석탄은 300년밖에 공급할 수 없다. 자원고갈에 의한 성장 한계를 맞기 이전에 환경 파괴로 인해 더이상 성장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65억 인구를 가진 지구의 경제 규모가 앞으로 2025년이면 다섯 배, 2050년이면 열 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과 꼭 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에너지와 자원이 열 배 더 필요하고 환경 파괴 행위도 열 배 더 커진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열 배나 더 커진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집약된 자원이 이 지구상에 없다. 이러한 경제는 대부분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와 광물자원, 그리고 삼림, 흙, 바다 등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이러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고갈 속도도 빠르다.

가장 환경 파괴 심각성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구 온난화로 야기된 지구 기후 변화 문제이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온실가스 배출은 과거 500,000년 동안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연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것이다. 온난화 추세가 21세기에도 계속된다면, 평균 지구 표면 온도 2-4도 상승과 해수면 45-90cm 상승으로 인해 홍수, 폭

풍, 해일로 인한 피해의 확산, 질병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식량 생산의 감소 등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최악의 지구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 지혜를 빌린다면 인간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이른 것을 깨닫을 수 있다.

V. 자연은 유기적인가 기계적인가?

우리의 지식은 어떠한가? 과학과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전개된 기계론적 입장에서서는 하나님의 자연과는 완전히 다른 기계로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주류이다. 즉 물리적, 생물학적인 세계의 신비는 기계부품들이 모여 있는 체계로 전락되어 추론을 통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자연은 죽어 있고 분해되어 구성 요소로 맞추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그 가정 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런 견해에서 본 자연이란 '분자 구성요소, 물질의 한 부분, 기계부품'과 같아서 '죽어 있고, 소극적이고 무활동적'이다(Merchant, 1980:229). 기계적 세계관은 직접적으로 상품화 과정을 합리화시키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 파괴를 반생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유기체적인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로 취급한다. "물질이 원자로 만들어졌고, 색깔은 길이가 다른 빛의 파장의 반사에 의해 발생하고, 몸은 관성의 법칙에 따르고, 그리고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다"(Merchant, 1980: 193).

이런 인식은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의 인구 성장에 따른 경제개발을 주창하며, 지구상에 자원이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믿는다. 경제 성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기술 진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다. 산업혁명 이후 수세기 동안 산업화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 하에서, 서구 선진국에서 이러한 성장 위주의 과학기술적 접근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산업혁명은 석탄 같은 원료물질들을 유용한 자원으로 만드는 기술 변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유럽의 식민지를 얻기 위한 팽창 정책은 신대륙과 해양의 이용을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제 성장은 건강한 사회의 정상적 조건으로 인식되었다.

과학기술적 접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모든 국가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적으로 세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부딪힌 지금에서도 설사 자원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원은 필요하면 발견되고 자연자원은 인간이 물질을 변화시켜 창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자연은 단지 미가공 상태의 물질일 뿐이다. 이들은 충분한 에너지만 투입된다면 철이 동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성장의 결실로 얻은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오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에게 있어 환경의 자정능력은 그리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이런 기계적, 물질적 자연관은 창조질서 속에서의 인간의 인간됨, 삶과 문명의 본질과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모습으로 각 영역들을 조정하고 움직이게 되었다. 창조질서 내에서의 본래적 모습에서 더욱 이탈하여 자기 모순과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서구식 산업화의 모습인데 인간의 물화, 생태계 파괴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성경에서 자연은 기계적으로 구성된 단순한 물리적 실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지구를 하나의 살아 있는 개체로 보는 가이아 가설(Lovelock, 1979)이 전적으로 성경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자연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로 묘사될 만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자연은 예수

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끊임없이 교란시키는 혼돈의 세력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분으로서 위협적인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밝히고 있다(마태 9:26-27).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때 반응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와 파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소리를 멈추고 잠잠해지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자연과 대화하며 타락하여 혼돈상태에 있는 자연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예수의 추종자는 사람뿐만 아니고 바람과 바다 같은 자연의 세력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만 아니다. 일반 사람의 간절한 자연에 대한 기도도 들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야고보 5:17-18).”

우리는 예수님은 단지 문둥병자를 고쳐 주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등 인간에 관한 구원과 기적들에 집중함으로써 그 분의 활동과 관심의 영역을 상당히 축소시킨다. 예수님은 다른 폭풍을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걷고, 들짐승이 해치지를 아니하고, 자연과 친교를 나누고 기도하기 위하여 산 위로 올라가고, 호숫가를 거니는 등 자연과의 많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이상훈, 배규식 역, 1996:126-127). 반응하며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자연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에 관한 사명은 단순한 관리만을 의미하는 청지기적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에 따라 자연 파괴도 치유될 수 있는 반응의 대상으로 확대 해석해야 할 것이다.

VI. 정의로운 자연 사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절대적인 자원과 환경의 제약 문제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분배와 사용에서 발생하는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문제이다. 주요 사례를 들면, 자원이 척박한 땅에서 생명 유지에 급급한 사람과 비옥함이 주는 축복을 독점하려는 사람과 지역 간에 발생하는 비정의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이다. 자연의 혜택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베푸심인데, 힘 없는 사람과 나라는 점점 황폐한 땅으로 내몰리게 된다. 빈곤한 사람에게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자연이라 점점 더 이용, 고갈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생태계 파괴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페르시아의 걸프에서 충돌이 계속 발생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핵심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 경제와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전쟁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수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이런 화석연료의 집중적인 사용방식인 경성에너지경로(hard energy path)에 의존하고 있어 친환경적이고 민주적, 분산적인 연성에너지경로(soft energy path)의 정당한 경쟁조차도 강력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Lovins, 1977).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에 관련된 환경 비용, 건강과 안전 등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에너지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창조질서의 기본인 대기의 화학구성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환경 위기는 중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욕심과 경제질서 자체에 있다. 세계 에너지시스템의 불안정성, 시스템 유지 비용의 점증과 지구 환경 파괴 등과 같은 경성 에너지경로의 한계를 보여 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은 하지 않고, 대신 산업사회의 자기만족과 안

위에 머물고자 하는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산업국가들이 비로소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중심의 세계 에너지체제의 실패를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과 에너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즉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사회경제체제의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페르시아인 결프의 유전에 다시 한번 운명을 걸고 일촉즉발의 전쟁발발이 억제되고 석유가 자유롭게 싼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건설해 놓은 원자력 발전이 사고 없이 운전되고 방사능 폐기물이 어느 섬에 버리게 되었다는 뉴스에 안도하며 기뻐할 것인가? 즉 지금의 사회경제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인가? 이것이 이슈인데 창조질서를 회복하라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다면 당연히 변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혜택)과 부담(피해)이 공평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빈곤층은 부유층에 비해 자원이용에 따른 혜택보다는 불이익을 더 많이 보고 있다. 유해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곳은 주로 흑인과 중남미 라틴계 주민의 거주지에 몰리는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가 간에도 개발도상국들은 물질적 풍요도 제대로 맞보지 못한 채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과 같은 피해를 선진국과 함께 당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파괴와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독교인들이 동참시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것이 환경적으로 정의롭다는 것을 추론하고 밝히기 보다 무엇이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라는 문제를 전략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의 정의로운 상태보다 환경오염이나 그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상태, 즉 환경비용과 피해의 불공정한 배분이 야기하는 환경 부정의가 환경문제에서 중요하게 인식

되기 때문이다. 환경정의론적 입장에서 환경문제는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의 사람들, 모든 활동 주체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나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사회적 권력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현대 환경문제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부유층보다는 빈곤층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청장년층보다는 노인이나 아동이, 백인보다는 유색인이,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현재 세대보다는 미래세대가, 인간보다 다른 생물종이 환경오염을 적게 발생시키면서 그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나님이 둘째날 창조하신 궁창, 즉 대기권의 화학구성을 변화시키며 생태계와 인간의 생명에 전 지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현대 산업사회의 거의 모든 활동과 연계된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하며 구조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지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이 지구 환경문제가 초래하는 또는 초래할 피해가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후 변화에 역사적으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은 이 생태학적 위기로부터 이익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건강, 농업 생산, 인프라 체계가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Byrne et al., 2001).

온실효과에 의한 기온 상승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바닷가 침수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태평양의 키리바시와 투발루 등 군소 도서국가는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주거지의 상실에 직면하였다. 해변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해변에 거주하는 것이 위협받고 있다. 투발루는 이미 이웃 뉴질랜드로 이주를 시작하였다. 작은 섬나라는 일인당 온실가스 배

출량이 적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최악의 피해를 겪을 것이다. 또한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대로 선진국이 1990년에 비해 평균 5.2%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더라도 섬의 지속 가능성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섬나라들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대기를 안정화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1990년 수준의 60% 감축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지만 국제사회의 결정을 좌우할 힘은 가지지 못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을 받을 섬나라들은 스스로 방어하도록 방치되는 반면, 대륙의 선진국은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값싸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제 공받고 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제적 대응은 현재의 국제적 불평등 패턴을 재생산하고 있다. 선진국의 번영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대기에 온실가스를 역사적으로 누적해 왔으며 현재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개도국은 최근에 산업화 경로에 진입하고 있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에게 1990년 수준의 평균 5.2% 의무 감축 목표와 2012년 의무 이행 기간을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1990년 수준의 60% 감축과는 거리가 멀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후진국은 현재 발전단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를 거부하고 '성장을 위한 공간(space to grow)'을 요구하고 있다. 후진국의 '생존을 위한 배출(survival emission)'과 선진국의 '사치스런 배출(luxury emission)'을 구별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서 도입한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시장형 정책 수단은 선진국이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신 개도국의 자연을 이용하여 탄력적으로 의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둘러싼 사회시스템의 불평등한 구조가 얽혀 있어 이의 해결 없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환경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협상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국제 에너지체제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여 에너지와 환경오염이라는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정의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은 자연질서로의 회복이 되므로 성경적임을 말할 수 있다. 사실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시스템이 사회구조와 발전양식을 결정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루이스 머포드(L. Mumford) 같은 문명사학자는 세계 역사를 에너지 기술 복합체를 중심으로 크게 나무, 물과 관개기술이 결합된 생태기술시대(eotechnic phase), 석탄, 석유와 엔진기술이 결합된 구기술시대(paleotechnic period), 수력, 풍력 및 태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대인 신기술시대(neotechnic phase)로 구분하였다(김종달, 2002). 이런 입장에서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구기술시대의 성장 경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기술시대로 이전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VII.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토지는 성경에서 자연을 대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 인간과 땅은 각각 분리된 인자들이지만,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서로 상호 연결될 때만 완전한 실체를 드러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농업을 하며 정착했던 시기와 배회하던 유목시기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토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었고, 만약 그들이 토지 위에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토지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 토지로부터의 분리는 가장 큰 위협이었고, 토지 위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최고의 서약이었다. 따라서 토지 위에서서의 거주, 즉 그들 희망의 완성은 '토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건으로 한다.

토지는 열매를 맺고, 유익한 선물을 제공한다. 토지는 소중히 다루어졌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해 주었다. 토지는 비탄과 환호로서 설명될 수 있고, 심지어 인간들의 수많은 죄악의 결과로 인한 분출로서 설명될 수 있다. 토지는 인간의 죄악에 의해 오염될 수 있고, 정화를 필요로 할 수 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여겨졌다.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한 계약, 그리고 토지와 한 계약을 준수하는 한, 토지는 이스라엘에 위탁되었다. 게다가 그러한 상속은 사유화되었다. 각 가정은 그들의 상속분을 받았고, 이러한 상속을 지킬 책임을 가진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키고, 그 공동체는 각 가정이 그들의 상속분을 보존하고 이전하는데 있어 질서를 유지시키는 책임을 진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존재는 불완전하게 된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신뢰하여, 상속 토지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토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공익에 부합해야만 한다는 견해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적 소유권에 반대하는 주장이 아니라, 단지 사적 소유권의 잘못된 이용에만 반대한다. 모든 경제적 결정은 공익에 부합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공익으로서

토지의 정의가 성장하는 산업 계급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고, 이러한 전통은 약해져 갔다.

빈곤, 환경과 같은 사회경제문제의 근원과 해결을 토지소유 제도와 연결하여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가 헨리 조지(H. George)이다. 1880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명저에서 그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물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의 산물로서의 사물이요, 또 다른 하나는 대자연의 자비로운 공여로서의 사물이다. 토지는 바로 이 후자에 속한다. 조지에 의하면, 전자에 대한 배타적인 사적 재산권은 사회정의에 위배되지 않으나, 후자에 대하여 대자연은 인간에게 어떠한 사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대자연은 오직 노동에게만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사유권을 인정한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만민의 이익을 위해 창조한 토지를 사유화하여 지대를 수취하는 것은 절도라고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창조주가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한 자연의 기회를 독점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것을 정의로 본다(김종달, 2002).

따라서 대자연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물에 대하여 사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곧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는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함에 따라 다수의 생계 및 삶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대자연이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연법칙, 즉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노동의 권리 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면 타인의 자연권을 부정하게 된다. 즉 타인의 자연적인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타인의 노동 생산물의 일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전유하게 되어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고,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가져온다.

조지는 자연은 공유로 노동의 산물은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래서 노동에 관계 없는 가치의 증가는 지대의 100%를 사회가 흡수하고, 노력의 대가에 부과되는 다른 모든 조세들은 폐지하자는 것이 조지의 토지단일세론이다. 다만 경제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그 구조 또한 매우 복잡해진 오늘날의 시점으로 돌이켜 본 100여년 전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는 이제는 더 이상 충분한 정부 수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토지와 건물의 차등과세에 덧붙여서 판매세, 소득세, 회소자원에 대한 조세(severance tax), 그리고 소비세, 가솔린세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Daly, 1991: 328-329). 토지단일세를 주장하는 그의 논리 밑에는 작은 정부에 대한 예찬이 설득력 있게 깔려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조지의 기본적 생각은, 회소자원을 보전하고, 해로운 물질의 이용을 줄이고, 토지 투자를 종식시키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이용을 촉진시키고, 불로소득을 공동체로 회수시키고 건전한 사업을 유도한다는 공동체를 위한 토지 이용에 주요한 이론이 될 수 있다. 대천덕 신부도 토지를 공의롭게 분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포함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대천덕, 1994:115)

VIII. 자연 회복은 누가 하는가?

땅, 물, 공기, 생물들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인간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로마서 8:18-23). 그러나 그러한 자연의 구원은 자연 자체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구원과 해방의 손길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노영상, “로마서”). 즉 자연회복을 위하여 인간 측의 책임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환경 오염과 생태계 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에 그 뿌리가 있다. 또한 타락과 죄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만들었고 인간으로 하여금 관리인 내지 청지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가 바로 환경 파괴의 서막이 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을 신격화하며 숭배하기도 하고, 또 역으로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착취하거나 파괴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이용대상으로 보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연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총체적 생태계의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할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 노력은 인간인 우리가 하기는 인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과학적 가치라는 입장과 이익에서 바라보는 생각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요구된다. 우리 국민의 환경의식이 높다고 조사되지만, 실제 돈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총체적 생태계 입장이란 도덕적 기준에서 행동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자연의 미와 조화를 파괴시켜 땅에서 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의 조화와 질서, 아름다움과 평화로 돌려 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세상적 구원이 오늘날에서도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따름이다.

사람이 가진 윤리와 가치관은 생활방식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제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진다. 우선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발적인 검소한 생활방식(life style)으로의 변화인데 어려운 사항이다. 지구는 풍부하데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용할 때, 이를 위해 서로 탈취하고 미래로

부터 빌리는 것이고 환경과 다른 종들을 파괴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양이 충분한가?”라고 자신에게 물어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러한 욕구를 절대적인 필요로 생각하도록 조건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자발적인 검소이지만,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강요된 검소(forced simplicity)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환경문제가 대두될 때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산업주의자, 무관심한 정치인, 잘못된 세계관 등이 자신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죄책감이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죄책감이나 나쁜 느낌을 회피하려 한다. 비난, 불안,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책임 있는 생활방식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욕망의 절제를 통해 자연과 조화가 되도록 삶을 변화시킬 때 생태계 파괴가 생존위기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개인적 도덕과 노력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크므로 제도화가 요청된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금령과 더불어 음식법 및 안식의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정결한 식생활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실천 방안이다. 이것은 동물을 포함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제사 방법인데 자연보호, 교육의 실천적 제도 방안으로 원용될 수 있다(정중호, 1997). 제도화하여 엄격히 지킬 것을 명한다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각 개인의 의지를 넘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 함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변화, 즉 환경윤리, 도덕적 의식과 행동의 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책이 될 수 없다. 다음에 고찰할 사회경제 구조 및 정치적인 면에서 변화와 그것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고찰할수록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환경문제는 자연자원의 채취에서부터 운반, 사용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며, 그것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일어난다. 도덕적, 공학적 차원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사회경제구조를 지배하는 법칙의 메카니즘 속에서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와 경제활동 중간에 또한 에너지와 같은 기술구조가 변화되어야 환경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최대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구조가 곧 환경문제를 불가피하게 낳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따라서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구조의 논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그것도 기술, 세계경제체제와 같은 사회경제제도와 관련 속에서 체계적으로 찾아야 한다. 자연회복과 경제활동의 유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의 모색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과제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환경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업들은 이윤추구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피해의 당사자이며 하나님의 질서 회복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둔 민간 환경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은 사소한 자연보호부터 공해 추방, 생존권 보장, 특정한 동식물의 보호, 프레온가스 같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 제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효과 유발가스의 배출 제한, 자원 재활용 등을 거쳐 산업생산의 중단, 원자력 발전의 중지, 사회변혁에 이

르는 매우 다양한 가치목록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한다.

초기의 환경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대항세력을 상징한 ‘운동권’의 적대적 담론은 그 범위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전술이나 그에 따른 현실 인식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행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정감적 자기 확신과 도덕적 열정으로 추동되는 저항 행위는 환경문제를 시위의 의도, 즉 전략과 전술에 따라 공식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사소통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저항 행위의 정당성은 결코 그 동기의 도덕적 진지함에서 얻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신앙적 환경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이제 더 이상 좁은 의미의 계급투쟁의 개념은 벗어나야 한다. 현실을 부정하여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녹색낭만주의 운동과 같은 급진적 저항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조심스러운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인 변형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자본주의와 산업주의 사회체계, 경제성장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문화체계,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이 내면화된 인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환경운동의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생활습관, 법, 사회경제구조를 바꾸며, 시민운동을 하여 우리의 환경을 창조질서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다. 파괴된 환경의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성경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경계와 정복의 대상이었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화해와 조화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 준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인간에게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신다. ‘악한 짐승이 땅에서, 그리고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에서 자

게' 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겔 34:26-27). 이사야 선진자가 예언한 대로 미래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써 실현될 조화로운 시대, 즉 자연계 내에서는 물론 인간과 동물 사이에 펼쳐질 조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11:6~9)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총체적인 연결 관계 속에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물질의 한계와 이 죄악된 세상의 한계 속에서 구현된, 창조질서의 회복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것이 곧 저 천국구원과 함께 현세적 구원의 길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도를 고치고 경제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야 생태계도 바로 설 수 있음을 계시록은 가르쳐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정옥, “성경과 환경,” “환경을 지켜야 할 크리스찬,” <http://www.kacr.or.kr>.
- 김종달, 2002, “헨리 조지와 환경문제,”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 경북대학교 출판부, pp.127-147.
- 김종달, 2000, “에너지 체제전환 정책,” 『새천년 환경과 국토』, 나남출판, pp.145-186.
- 김종달, 1999, 『지구 온난화문제와 에너지 혁명』, 형설출판사.
- 노영상, “창세기,” “출애굽기,” “호세아,”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http://kcems.peacenet.or.kr>.
- 대천덕, 1994, 『신학과 사회: Theology and Society』, CUP
- 디 브라운 저/최준석 역, 2002,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나무를 심는 사람.
- 브래들리 이안 저/이상훈, 배규식 역, 1996, 『녹색의 신』, 도서출판 따님.
- 전광식, 2002, “환경문제에 대한 성경적 고찰,” <http://kcems.peacenet.or.kr>.
- 전광식, 1991, “생태학적 철학과 윤리학의 최근 동향,” 『통합연구』 통권 12호, 통합연구 학회.
- 정중호, 1997.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제사장 신학,” 『구약논단』, 제3집, pp. 108-128.
- 최병두 외, 2002, 『녹색전망: 21세기 환경사상과 생태정치』, 도요새.
- Agarwal, Anil, Sunita Narain, and Anju Sharma, 2002, “The Global Commons and Environmental Justice-Climate Change,” in Environmental Justice: discours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Byrne, Glover, and Martinez(ed.),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pp.171-199.
- Byrne, John et al., 2001, “The Postmodern Greenhouse: Greating Virtual Carbon Reductions From Business-As-Usual Energy Politics,”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Vol. 21, No. 6, pp.443-455.
- Byrne, John, Young-Doo Wang, Hoe-Sung Lee, and Jong-dall Kim, 1998, “An Equity- and Sustainability-based Policy Response to Global Climate Change,” Energy Policy, Vol. 26, No. 4, pp. 335-343.
- Daly, Herman, 1991, Steady-State Economics, Washington D.C.: Island Press.
- DeWitt, Calvin B, 1994, Earth Wise: A Biblical Response to Environmental Issues. Grand Rapids, Michigan: CRC Publications.
- George, Henry, 1992, Progress and Poverty, New York: Robert Schalkenbach

- Foundation(김윤상 역, 1997,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 Lovelock, James, 1979, GAIA - A New Look at Life on Ear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vins, Amory B., 1977, Soft Energy Paths: Toward a Durable Peace, Harper Colophon Book.
- Merchant, Carolyn, 1980,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ew York, NY: Harper and Row.
- Schaeffer, Francis, 1970,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The Christian View of Ecology, Wheaton,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 White, Lynn Jr., 1967,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Vol. 155, pp.1203-1207.

김종달(金鍾達)은 대구평강교회 장로집사이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솔라시티테스크 한국대표 및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운동연합 등에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도시 및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환경경제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델라웨어대학 에너지환경연구센터의 연구위원을 역임했다.